부산연등축제 본격 시동 걸다

3월 7일, 실무자 회의 개최

부산연등문화제 4월 28일 점등식
제등행렬 5월 13일 부산시민공원
전통문화 계승 위한 다채로운 행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가 불기2567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부산연등축제 준비를 본격화했다. 사진은 부산연등축제 실무자 회의. 2018년 점등식 사진.

불기2567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부산연등축제가 시작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3월 7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불기2567 부산연등축제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과 주재형 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부산불교연합회 관계자, 부산 전 지역 사찰에서 활동하는 실무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무총장 범수 스님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것은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심과 관심을 이어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연등축제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이며 행사기간 동안 △전통등강습회 △부산연등축제 특별전(전통등, 불교사진, 지화) △부산연등문화제 △부산연등회(연등행렬) △봉축자비나눔 △실무자 간담회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등이 이어진다. 주요사업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되며 주요사업은 부산연등문화제와 부산연등회(제등행렬)이다.

△부산연등문화제

부산연등문화제는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진행된다. 부산연등문화제 개막식은 4월 28일 오후 6시이며 점등식과 호기놀이, 느티떡 나눔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개막점등식에서는 시민들에게 축제 시작을 알리며 간이 연등행렬이 진행된다. 간이 연등행렬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담당한다. 부산연등문화제에서 시민들은 불교와 민속, 만화 캐릭터 등 다채로운 대형 장엄등과 테마등을 관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참가 시민들은 소원등을 달거나 각종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소원등 달기 체험비는 1000원이며 수익금은 자비나눔 행사로 소외 이웃을 위해 회향된다.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은 가족들과 함께 찾는 시민들을 위해 5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맛볼 수 있는 비빔밥 나누기 '무차만발공양'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분과에서 주관하며 비빔밥 3000인 분을 무료로 나눈다. 무차만발공양은 5월 7일 오후 4시에 시작되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부산연등회(제등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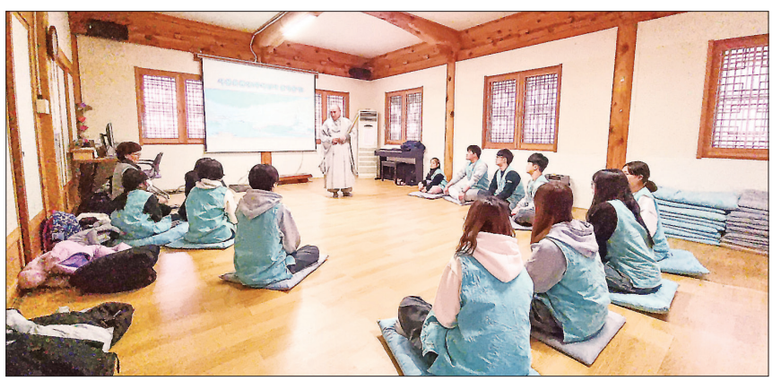
부산연등회는 5월 13일 오후 6시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진행된다. 부산연등회 1부는 육법공양과 호국영령위령재, 관불의식이 이어진다. 육법공양의 미(米) 공양에서는 느티떡을 올려 부처님오신날 느티떡과 콩찐이를 만들어 부터님께 공양올린 전통 문화를 강조한다. 2부는 봉축연합대회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태민안과 부산발전을 기원한다. 3부는 연등행렬이며 재현행렬단과 승재가 내빈, 연희단, 악대 등으로 구성된 화려한 연등행렬단이 어둠을 밝히고 시민의 행복을 기원한다. 연등행렬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며 행렬구간은 부산시민공원에서 하마정교차로, 양정교차로에 이어 송상현 광장에서 회향한다.

△기타행사

전통등강습회(2월 22일~23일)와 부산연등축제 특별전(3월 24일~4월 9일, 부산미로전시관)은 전통방식의 재료와 방법으로 제작한 전통등을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등강습과 특별전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불교전통문화 및 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불교전통문화 계승과 미래세대 전수를 위해 부산불교연합회에서 구성한 어린이 불자단체이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연등행렬에서 사용할 등을 직접 제작하며 호기놀이 동참, 연등행렬 연희단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활동한다.

한국명상진흥원, '명상학교' 개원

4월 6일~6월 29일, 총 13강 진행


한국명상진흥원이 4월 6일부터 6월29일까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심(心) 봤다!'를 진행한다. 사진은 마가 스님이 옥천사 템플스테이에서 명상을 지도하는 모습.

한국명상진흥원(이사장 마가)이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심(心) 봤다!'를 진행한다.

명상학교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심(心) 봤다!' 프로그램은 한국명상진흥원이 개원 후 처음으로 전국 재가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명상 안내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상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11명과 명상음악가 김무한 및 붓다라마 최진규 등을 초청하고 명상과 음악을 통해 쉼을 선사한다.

4월 6일 개강에서는 한국명상진흥원 이사장 마가 스님이 명상학교 교장으로 첫 강의를 담당하며, 김무한 가수도 함께 진행한다. 이어 △명상, 생각으로부터 자유, 참본성과 함께(4월 13일,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 △명상의 이해와 실천법(4월 20일, 해인사 상임포교사 광우 스님) △틱낫한 스님 명상(4월 27일, 석태사 주지 만초 스님) △불교명상, 놓아버림의 길(5월 4일, 보디야나 선원장 혜안 스님) △참된 명상이란(5월 11일, 목탁소리 운영자 법상 스님) △동아시아 명상의 특징과 선불교(5월 18일,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명상(5월 25일, 서울불교대학원대 초빙교수 효록 스님) △스마트 시대의 명상(6월 1일/ 붓다라마 최진규) △다라니 집중명상(6월 8일/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참사람의 향기(6월 15일/前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아바타 명상(6월 22일/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이며 회향 강의는 마가 스님이 6월 29일에 진행한다.

마가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은 첫 시작으로 강의를 통해 명상 안내와 실참을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후 심도 깊은 프로그램으로 명상 수행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안내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상학교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심(心) 봤다!'는 온라인을 병행하며 오프라인에는 100명 온라인에서는 1000명이 신청 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이메일(puremind-ms@daum.net)로 가능하며 수강료는 집중명상을 포함해 총 45만원이다. 수강 기간 동안 신청자들은 밴드를 통해 교수진 스님들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가자들에 한 해 집중프로그램 참석이 가능하다. 집중명상은 6월 중에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승려연수교육 입재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 용학 스님 강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3월 7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승려연수교육 강좌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번 승려연수교육은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下)'를 주제로 진행되며 강의는 前 범어사 승가대학 강주인 용학 스님이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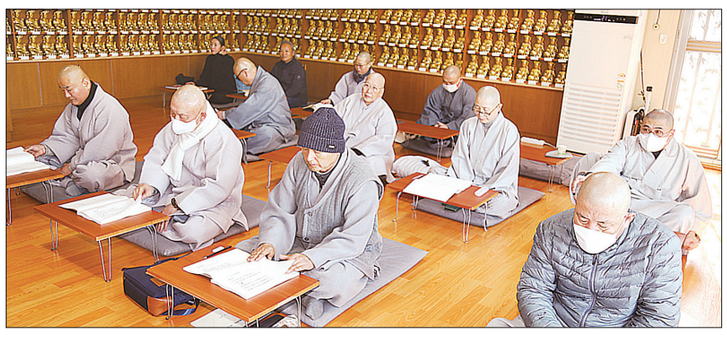
승려연수교육에는 조계종 스님 34명이 접수했으며 4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총 5회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스님에게는 연수인증점수 30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정관 스님은 "도심 포교와 불법 홍포로 바쁘시고 노력하는 주지 스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며 이번 연수교육은 지난 교육에 이어 대승기신론 하편을 강의한다"며 "대승기신론 공부를 통해 보살의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 대승의 마음은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 수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한불교불음원 제17기 영남범패 개강

함안 달전사에서 첫 강의 진행



대한불교불음원(원장 원명, 달전사 주지)이 코로나로 중단됐던 제17기 영남범패교육과정 개강식을 갖고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3월 2일 함안 달전사 관음전에서 열린 개강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강의일정 소개 및 안내, 자기소개 및 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한불교불음원 영남범패 교육과정은 천도의식과 수륙재의식 전승 및 보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천도법음집을 교재로 사십구재의식 이론과 실기, 작법무(바라무, 착복무), 수륙재의식으로 구성됐다.

원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됐던 강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빠짐없이 수강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범패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개강된 대한불교불음원 영남범패 교육과정은 49재 의례를 중심으로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수륙재강의를 추가 수강할 수 있다. 수강 자격은 삭발염의한 출가승려로 제한되지만 특별히 불교예술원, 불교무용 대학원생 각 1명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영남 지역의 영재범패는 경남북지방의 전승되고 있는 범패로 피리, 나팔 등을 사용하지 않고 태평소만 사용한다. 경기도 경재범패, 서울지역의 서울재범패, 전라도 완재범패, 충청도 중재범패와는 확연하게 구분돼 있다.

영남범패는 통도사와 범어사 중심의 통범범패, 통영 고성지역의 통고범패, 동화사 중심의 팔공산범패로 전승되었는데 팔공산범패는 통범범패에 귀속 소멸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범패가 축소되어 수륙재만 존재하다가 조선 중기 이후 왕실위주의 수륙재가 사찰위주로 되면서 규모 및 행사가 축소되어 명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 현재 영남범패는 용운 스님, 대산 스님, 한파 스님, 원명 스님 계보로 이어오고 있다.

대한불교불음원은 2007년부터 매년 현충일에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에 대한 수륙재를 봉행해 오고 있다.

대한불교불음원은 이날 개강한 6개월의 교육과정 이후에는 영산재, 예수재, 점안의식, 기타 불교의례에 관한 강의도 개설할 계획이다. 영남범패에 대한 문의는 사)대한불교불음원, 함안 달전사(010-3867-8419)로 하면 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사 · (사)자연의벗연구소 업무협약

3월 5일, 독수리 먹이주기 환경살리기



경남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3월 5일 옥천사 경내 자방루에서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을 통해 옥천사와 (사)자연의벗연구소는 템플스테이에서 독수리 먹이주기와 환경을 위한 생태활동교육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실무자와 신도들이 동참했다. 업무 협약식 후 참석자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문화를 체험하고 생명존중사상을 배웠으며 독수리생태관을 방문해 독수리 먹이 주기와 환경 교육을 체험했다.

주지 마가 스님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성 지역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옥천사가 자연생태환경 보존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획을 얻었다"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명상을 배우고 쉼을 얻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시간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사는 고성 탈 박물관과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가올 3월 25일 신도회장 취임식도 개최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동고, 관세음보살 · 관음탱화 점안식

3월 2일, 교내 법당서



학교법인 영축학원(이사장 현문) 산하 부산 해동고등학교(교장 이수길)는 3월 2일 교내 법당에서 '관음보살 및 관음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의 증명과 통도사 염불대학원 원장 영산 스님의 법주로 점안식이 진행됐으며 이수길 해동고 교장, 안정수 법사 및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교내 법당에 새롭게 모셔진 관음탱화는 진주 백운사 주지이자 영축학원 감사인 성구 스님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보시했으며, 관음탱화는 조계현 불화장의 작품이다.

현문 스님은 "관세음보살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는 중생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을 주고 가정에 평안을 주는 보살님이시다"며 "불상이나 탱화가 점안식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작품이지만 오늘 점안식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게 됐다. 오늘부터 교직원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이 관음보살님 앞에서 열심히 정진해 관세음보살님의 신력으로 소원을 성취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란다"며 열심히 정진하길 당부했다.

이수길 해동고 교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2023학년도를 영축학원 이사장이신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모시고 관세음보살님과 관음탱화 점안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인연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인연을 바탕으로 우리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고자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지혜를 바탕으로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학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신흥사, 제7회 전국 학생 사생실기대회

3월 5일, 700여 명 참석



양산 신흥사(주지 호법)가 3월 5일 신흥사 경내에서 '제7회 전국 학생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 및 인사말과 사생실기대회 주제 발표 등으로 이어졌으며, 양산 신흥사 주지 호법 스님, 이경희 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장, 노경희 전국유치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참여한 초 · 중 · 고 학생 700여 명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주지 호법 스님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했던 사생대회가 오늘 개최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학생들의 밝은 마음을 담는 사생대회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가족들의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학생 사생실기대회는 코로나 이전에 1200여 명이 동참하는 지역 대표 사생대회였으며 양산 원동의 매화축제를 장식하는 행사였다. 코로나 방역 해제 후 다시 시작을 알렸으며 참가 학생들은 신흥사를 배경으로 풍경화와 자유화 등을 그렸다. 시상 내역은 교육감상, 시장상, 국회의원상, 시의장상, 특별상이며 시상은 각 학교서 진행한다. 수상작품은 3월 11일 원동 매화축제 광장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불곡사 취봉 스님 21주기 추모재

청소년 6명에 장학금 50만 원씩



불곡사는 3월 6일 불곡사 관음전에서 '취봉 스님 21주기 추모재 및 취봉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취봉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창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유주연 학생 등 6명의 학생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나눔을 좋아하는 불자들의 십시일반 모금에 감사하며 대표로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장학금은 스님과 사부대중의 마음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이웃이 되고 서로 동반 성장하고 소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원 취봉장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취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은 우리 이웃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자비의 온정을 함께 나누는 행사"라며 "우리 지역의 사부대중 모두의 관심과 후원으로 불국정토가 이루어지도록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계속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